

안산광림 교회 클럽 이야기



안산광림교회 (Ansan kwang Lim Methodist Church) 어와나는 2005년 4월 T&T 단원 60명 교사 14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날이 갈수록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회 내 새로운 교육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회출석을 예전보다 더욱 즐거워하고 신나는 신앙교육 생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2006년에는 불티단(Sparks) 클럽원 30명과 교사 6명으로 제 2차 어와나 가족을 구성하면서 전체 어와나 가족이 확장되는 클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안산광림교회 어와나 클럽은 무엇보다도 이 교육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훈련을 기초하는 만큼 수요일 저녁 7시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 나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로 아이들의 직접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어와나를 통해 수요일에 한 번 더 교회에 나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장 큰 기대치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학교, 학원, 가정, 개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 할만큼 재미있는 어와나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마음껏 응원의 함성을 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해가는 모습입니다. 게임을 통해 서로 협력할 때 즉 팀의 공동체 속에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훈련이 배워지면서 이제는 역력히 증거 될 만큼 사랑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와나 교육에 핵심적인 아이들의 말씀암송 훈련을 거듭하면서 곧 이들의 신앙이 보이지 않게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이 말씀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 뚜렷한 증거가 바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광림교회 어와나에서는 1인 100구절 암송을 목표로 세워 놓았습니다. 단원 전체 개인적인 명단을 기록하고 말씀암송 체크리스트를 크게 게시하여 암송한 요절을 교사들이 직접 게시판에 기록해 주면서 개인별 말씀암송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경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단, 여기에 따른 암송은 매주 교제시간에 단원 전체 앞에서 암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T&T는 디스커버리 순서별로 8-9절암송과, 불티단은 3구절 이상으로 미리 예약을 받아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전원이 보고 확인하며 암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정하여 달란트지급과 개인 목록에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말씀중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이들이 어와나를 자랑하고 소개하면서 새 친구들이 등록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와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T&T를 졸업한 선배들이 지금에 후배들을 위해 보조교사로서도 역할을 감당해 주면서 힘이 되는 가운데 우리모두 더욱 부흥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원과 교사들의 인원 비례의 변동이 발생하여 어려움은 따르지만 미래의 꿈과 소망 속에서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적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안산광림교회의 기도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교회의 어린이들이 이 어와나 교육을 통해 우리의 당대보다 후대에 더욱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제목 -

1. Awana 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부흥케하시라 안산광림교회 어린이들의 믿음이 말씀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2. 교육목적에 따른 게임, 핸드북, 교제시간이 늘 배움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덧 입혀 주셔서 때마다 교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케 하소서.
3. 전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등록하게 하시고 아울러 필요한 교사도 넉넉하게 채워 주소서.



Story of Ansan Kwang Lim Methodist Church

Story of Ansan Kwang Lim Methodist Church

Ansan Kwang Lim Awana started with 60 T&T clubbers and 14 leaders in April, 2005. Not only kids but also parents have increasingly shown unusual interest and earnest in Awana activity, contributing to building a new system of education in the church. The kids are also becoming more willing to go to the Sunday school and pleased with the education. These earnestness made the Awana Sparks start with 30 clubbers and 6 leaders in 2006 as the second awana family.

For the discipline based on the awana program, Ansan Kwang Lim Awana planned to gather at 7 o'clock on Wednesday evening for the kids to come to church with their parents. The notable changes that the kids showed are as follows;

First, kids got more opportunities to learn the Bible at church. Through Awana on Wednesday, they were able to know God better and grow more spiritually.

Second, by competing, cheering and shouting to their heart content at awana games, kids could get rid of their stresses accumulated in their school, academy, family and their life elsewhere. They have also grown in their ability of love learning about the fellowship through the games by cooperating, consoling and encouraging each other.

Finally, with the discipline of memorizing God's Words, kids are building up their belief and showing their spiritual growth unnoticed, which is considered the best opportunity of God's blessing.



There is a principle for kids to recite in the public during the award time. T&T clubbers are supposed to recite eight or nine verses in Discovery order and Spark clubbers more than three verses. When a reciter completes the verses correctly in front of the whole clubbers checking the verses presented on the screen, he or she passes the test and is given a prize with talents, with their achievements recorded.

With the kids being proud of awana, they introduced awana to others and brought a new kid with them. There are some assistant leaders who finished T&T to help the younger. It is regret that leaders became less compared with the clubbers. But we are praying with the hope and dream for the future.

These are subjects we are praying for. We wish you pray with us and awana kids be leaders of God's kingdom in the future.

1. We pray for the Ansan Kwang Lim Awana to revive in quality and quantity and awana kids stand firm on the God's Words to become approved workmen for God.
2. We pray for awana discipline with games, handbooks and fellowship anointed with joy, power and grace for the leaders and clubbers to experience the Holy Spirit's work.
3. We pray for other kids of the church members to join awana and more leaders to serve awana.

Awana 영작 : 김봉순 기자

